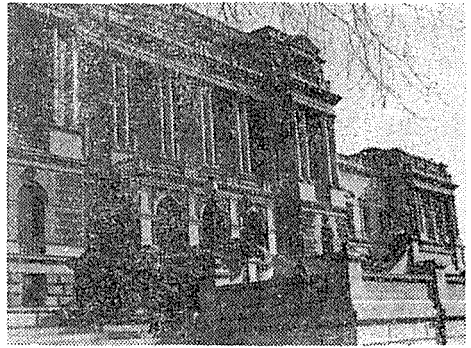


## 아메리카의 圖書館

金世翊



美國圖書館 正門

북으로는 「위스콘신」대학 도서관학교에서 남쪽 「노 오드캐롤라이나」대학에 이르는 미국에 산재한 여러 저명한 도서관과 도서관학교를 방문한 기록을 기행문 형식으로 엮어서 지난해 「도서관」과 「도협월보」에 8회에 걸쳐 연재했다. 비록 형식은 기행문식의 산문이었으나 필자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학문적인 입장을 떠나 본 일이 없었고 그 내용도 표제의 인상과는 달리 도서관학에 대한 지식에 근거를 두고 집필했었다.

라이브러리언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다만 한 기술자로서 자료를 정리하고 서고에 배열했다가 독자에게 기계적으로 제공하는 일을 날마다 되풀이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가지 유형의 라이브러리언은 문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서지적 지식을 배경으로 하여 독자에게 책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적인 인포메이션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 오피서(Information Officer)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서일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사서는 전자의 경우를 말하고 사회와 학문의 발전에 따라 사서에 대한 객관적 요구가 변모하고 커졌다는 것을 고려 할 때 새로운 라이브러리언의 이미지를 우리는 자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전환기에 대처할 자세가 아직도 확립되지 못하고 도서관과 도서관학에 대한 개념의 모호한 면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 의도하는 바가 바로 이 점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는 집필을 다시 계속하고자 한다.

여러 달에 걸친 미국의 여행을 끝마치고 이제 구라파로 건너감에 있어 미국에서 그 동안 전문한 바 또 생각한 바를 정리하여 아메리카의 도서관편을 마칠 것이다.

도서관의 역사로 보나 문화 일반에 걸쳐 미국은 구라파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늦게 시작되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어찌하여 오늘 날 세계에서 도서관 왕국을 이룩했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공업이나 일반 산업 그리고 군사력 같은 것은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일시에 비약될 수는 있다. 그러

나 문화 특히 도서관 같은 것은 일조일석에 비약될 수는 없다. 그것은 오랜 역사와 전통의 토양 위에서만 개화할 수 있는 문화적 소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적어도 도서관학이나 도서관 활동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을 규명함으로써 근대도서관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흔히 말하기를 미국은 구라파의 경우와 달라서 왕실문고(王室文庫)나 사원도서관(寺院圖書館)같은 자유와 평등을 표방하는 근대도서관의 비약적발전을 저해시키는 잠재적전통(潛在的傳統)이 없었다거나 또 구라파에서 건너간 신세계의 주민들이 개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도서관의 형태로 구상화되었다는 점 또는 이러한 역사적특질(歷史的特質) 외에도 구라파에서 신천지를 개척하려던 이민들이 문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로는 미국 사람들의 그칠 줄 모르는 개척정신과 실용주의적인 국민정신의 소산이고 또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부지런한 생활철학에서 유래되었다는 것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되었다. 미국에는 오늘 날 약 2만개의 도서관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도서관의 모체라고 볼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그 전체의 5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시민들은 도서관에 대하여 모두가 적극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도서관의 가치나 그 필요성에 대하여 회의론 가진 사람은 없다. 미국은 구라파 특히 영국이나 스칸디나비아 제국 처럼 도서관의 전국적 조직망 같은 것은 없지만 전국의 모든 라이브러리언들은 자료의 활용과 봉사라는 공통된 이념 아래에 굳게 단결되어 있으며 보수는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더라도 라이브러리언이란 뚜렷한 직업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정부나 사회단체의 호의에 찬 지원을 배경으로 하여 나날이 융성해 가고 있다. 결국 도서관의 융성은 그 사회의 번영과 국가의 발전과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은 또한 「멜빌 듀이」

라는 훌륭한 선각적 지도자를 가졌다는 것도 큰 이유라 할 수 있겠다.

### 아메리카의 대학도서관

필자가 대학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대학도서관을 많이 보게 되었고 또 대학도서관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미국의 대학도서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미국의 대학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역사가 오래된 대학의 도서관들은 그 건물이나 외양이 구태의연한 것이 많고 크기도 각양각색이다. 어떤 대학도서관은 우리 나라의 학교도서관 보다 작은 것도 있고 직원도 단 세명 밖에 안 되는 것도 있다. 그 반면에 새로 지은 도서관은 웅장하고 건물의 모양도 새로운 건축기술을 구사하여 지은 것이기 때문에 크고 스마아트 한 것도 허다하다. 가령 하바드 대학도서관 같은 것은 직원이 4 백명도 넘는 매머드 도서관이다. 이런 현상은 곧 미국의 대학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국에는 국립대학이라는 것이 없고 주립이나 시립대학 그리고 많은 사립대학이 있다. 이른바 일류대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개가 사립대학들이다. 학생수도 기백명 되는 대학부터 4 만 5천명이나 되는 매머드 대학도 있어 미국의 수 많은 대학들은 그야말로 천차 만별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도 그 규모나 모양이 또한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학도서관은 그 봉사활동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일치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대학도서관의 존재가치가 그 대학에 있어서 절대적이라는 점이다. 유명한 「파야고우」의 말대로 도서관은 그 대학의 심장(心臟)이며 도서관 없이는 대학교육을 추진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교수들은 물론이고 학생들이나 대학 경영자나 또 사회에서도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 대학 도서관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저하게 다르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반성하고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의 건전한 방향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안다.

첫째 미국의 대학도서관은 근본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봉사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도서관의 대출이 대단히 활발하여 교수에 대한 관의대출과 차이가 별로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몇몇 대학도서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학생들에 대하여 관의대출을 하지 않고 있고 관의대출을 한다 해도 대출책수가 적고 기한도 짧다. 이런 점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인 줄 안다. 또 한 가지는 대학도서관에는 예

외 없이 리저어브 룸(지정도서 열람실)이 마련되어 있다. 이것은 미국의 교육방법이 교수와 강의 중심 교과서 중심에서 자학자습 즉 학생의 자주적 활동을 중요시하는 새교육으로 변함에 따라 그들은 도서관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된 데서부터 기인된 것이다. 이 리저어브 제도가 확립됨으로써 학생들과 도서관의 거리는 더욱 밀접해져서 도서관의 존재가치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독서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대학도서관은 예외 없이 개가제(開架制) 일명 자유접가식(自由接架式)이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다소의 시간적 여유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도서관이 이용과 관리를 같이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가제를 실시하기는 지금로서는 어려울 것 같다. 사실상 학생에 대한 관의대출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보면 개가제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본다. 참고로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를 보면 교수와 대학원 학생에게는 전면적으로 개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학 학부학생에게는 아직도 폐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개가제가 편리하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까운 장래에 적어도 대학도서관에서는 개가제가 채택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미국 대학도서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언더그레듀에이트 라이브러리(Undergraduate Library)다. 이것은 학부도서관(學部圖書館)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대학교육의 모체는 학부가 아니고 대학원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미국의 대학의 아카데미학 레벨이 높아졌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연구조사와 논문 집필에 중점을 두는 대학원을 위하여 종전의 대학도서관은 리서어치 라이브러리가 되고 대학 학부학생을 위하여 새로 언더그레듀에이트 라이브러리가 대학마다 속속 건설되고 있다. 이 학부도서관이 생기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은 우리 나라와 달리 입학시험제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원하면 누구나 쉽게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수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제2차대전이 끝난 다음 젊은 군인들이 제대하여 다량으로 대학인구에 흡수되었던 것도 학생수의 증가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종전의 도서관 하나만 가지고는 각 대학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하기 어렵게 되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학원생과 학부학생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리라는 전제하에 분리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도서관 운영의 방식이나 장서구성에 근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참고실에 가보아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대출제도도 똑 같기 때문에 구태여 이러한 제도가 필요할 것인지의 문이 날 지경이었다. 다만 학부도서관은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열람실에서 담배도 피울 수 있고 빵 같은 것을 먹으면서 독서하는 광경을 많이 볼 수 있다. 크고 시설이 좋은 식당도 마련되어 있으며 매점같은 것도 꽤 규모가 큰 것이 있다. 그리고 가정의 응접실 같은 브라우징 룸(Browsing Room)의 시설도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학부도서관 중에서 미시간대학의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정평이 있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각대학 학부도서관은 그 건물의 모양이나 장서구성을 미시간대학과 꼭 같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미국사회의 획일주의(劃一主義)적 사고방식과 합리주의의 본보기라 하겠다. 다음은 미국 대학도서관의 관장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겠다. 디렉터(Director) 또는 라이브러리언(Librarian)이라고 불리워지는 대학도서관장의 책임과 권한은 대단히 크다. 극소수의 예외를 빼고는 대학도서관장은 이른바 도서관 전문직이 맡고 있다. 도서관학 박사이거나 정식도서관학교를 졸업하고 인격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상당한 수준에 있고 또 여러 해 동안의 도서관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따라서 학문적으로나 인품에 있어서 대학사회의 상부에 속하는 사람들이어서 대학당국에 대해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 물론 도서관은 대학의 한 시설이기 때문에 총장이나 이사회(Board of Trustees) 밑에 있기는 하나 도서관장의 정치적 수완이 그 도서관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강한 인상을 받았다. 미국의 대학도서관의 또 하나의 경향은 전문주제별로 도서관이 대학내에서 분산되는 현상이다. 예를 미시간대학에 들면 자연과학계통의 캠퍼스는 대학본부에 20리나 떨어진 곳에 새로 건설되었다. 이러한 지리적조건 때문에 새 캠퍼스에는 자연과학도서관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목록만은 중앙도서관에 한부 보내서 대학 전체의 종합목록에 편입시키고 있다. 도서관의 이용자수의 증대 그리고 연구자들의 고도의 전문화에 따라 대학도서관 단독으로는 충분한 봉사를 할 수 없게 되고 또 재정적 이유에서 근래에 와서 대학상호간 또는 리서어치 라이브러리와의 상호협력이 현저하게 발달해 가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유명한 파아밍턴 계획(Farmington Plan)이다. 어떤 대학도서관이건 단독으로 충분한 자료를 모두 수집할 수 없고 또 그것은 제한된 재원으로 각 대학도서관에서 서로 중복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비경제적이며 불합리한 일이기 때문에 도

서관 상호 대차의 정신을 살려서 미국의 대학 및 전문도서관이 상호 협력하여 미국 국내의 연구자에게 가치 있는 세계 각국의 신간 학술출판물을 수집하는 계획이며 이 계획에 참가한 도서관은 저마다 지정된 국내는 물론 외국 신간 출판물을 한권이상 의무적으로 수집하여 비치하고 그 목록을 국회도서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국종합목록에 편입시켜서 회원도서관의 상호대차에 응하는 제도이며 현재 약 60여 도서관이 참가하고 있고 전세계 100여 개국에서 신간 출판물을 받고 있다. LC에 있는 전국종합목록에 참가하고 있는 도서관은 현재 약 500인데 이 목록은 자료의 소장도서관을 알릴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특수한 언어나 특수분야의 자료를 정리할 때 참고가 된다는 의의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도서관마다 특수언어나 특수분야에 정통한 「캐탈로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파아밍턴 플랜이 가능한 것은 종합목록의 작성과 상호대차의 원활한 운용이 전제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아이디어가 실시될 수 있는 도서관계의 풍토가 하루 속히 마련되었으면 한다. 다음 미국 대학도서관의 특기할 사실은 중서부 도서관 종합 센터(Midwest Inter-library Center)의 설립과 그 운영이다. 이것은 미국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약 20여 개의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이 협동해서 각 도서관에서 이용의 빈도수가 적은 자료를 공동으로 보존함으로써 서고문제와 기타 여러 가지 파생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인데 현재 시카고에 설치하고 있다. 여기에 보관된 자료는 회원도서관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의 절약, 인원수의 절약, 관리비, 서고 증축비의 절약 등 허다한 이익이 생기게 된다. 1965년에는 조사연구도서관 센터(The Center for Research Libraries)로 그 명칭을 바꾸고 기구도 확장하여 서비스 범위를 중서부 뿐만 아니라 전 미국과 캐나다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유네스코 같은 대도 관심을 표시하여 진일보하여 세계 종합서지(International Bibliography)의 작성사업과 세계적인 유니언 캐탈로그 같은 것도 구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 미국의 도서관 단체

미국에서는 각 분야의 협회(Association)는 상당한 비중과 권한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도서관협회를 보더라도 국내외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특히 각 도서관 학교에 대하여 협회인정을 받게 하는 것 등은 협회의 객관적 비중을 짐작할 수 있는 뚜렷한 예라 할 수 있다. 1876년 「멜빌 듀이」 등에 의하여 창설된 미국도서관협회가 발전을 거듭하여

회원이 25,000 명이 넘고 예산이 200 만불이 훨씬 넘게 되었다는 것도 협회가 도서관 사업이나 도서관 학교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다. 더구나 협회는 도서관인의 전문성을 이룩해 놓았고 그 수준을 높였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협회에서 발간되는 전문잡지와 단행본은 그 질에 있어서 미국 출판계에서도 손색이 없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미국에는 A.L.A. 이외에도 30 여개의 도서관 관계 단체가 있다.

본부는 현재 시카고에 있으나 이것을 수도 워싱턴으로 옮기자는 논의가 있어 과거 몇 차례 회원에게 가부 투표를 시켰으나 그때 마다 대다수의 회원이 워싱턴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 같다. 그러나 실지 미국의 도서관계를 살펴보면 워싱턴으로 옮겨서 정부 각 기관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실리적이라고 느껴지는 면도 있어 장차는 이전이 실현될 것으로 예측된다. 30 여개의 도서관 단체 중에서 특수도서관협회(Special Library Association) 카톨릭 도서관협회(Catholic Library Association) 미국서지학회(Bibliographical Society of America) 교육영화 도서관협회(Educational Film Library Association) 등은 독립된 도서관 단체이기는 하나 다른 많은 단체와 같이 A.L.A.와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있고 그 외의 도서관 단체는 독립된 단체이면서도 A.L.A.의 하나의 부회(Division) 또는 가맹협회(Affiliated Association)이다. 브기를 들면 미국 학교도서관협회나 공공도서관협회 그리고 참고 봉사부회 등은 A.L.A.의 한 부회이며 의학도서관협회(Medical Library Association) 그리고 미국 도큐멘테이션협회(American Documentation Institute)는 A.L.A.의 가맹단체이다. 각주에 있는 주도서관협회도 대체로 A.L.A.의 지부단체이다. 마지막으로 특기할 사실은 도서관인이 아니면서 도서관 관계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있다. 즉 도서관친구회(Friends of the Library)라는 것이 각지에 산재하고 있어 대학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후원단체로서 도서관의 재정이나 도서관 P.R.에 협조하고 있다.

### 미국의 사서제도

흔히 도서관의 3대 요소라면 자료 건물 사서를 말하는데 미국에서는 그 중에서 건물을 5% 자료를 20% 그리고 사서를 75%의 비율로 보고 있다.

이것은 도서관에서 사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다는 뜻이겠고 따라서 우수하고 유능한 사서양성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하여 적어도 그 점에 있어서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 보다는도 유능한 사서를 배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서양성 교육면에 있어서

미국은 단연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 미국 도서관에는 전문직사서와 비전문직이 있는데 이것은 그 자격이나 대우에 있어서 엄격히 구분되고 있다. 호칭도 전자는 라이브러리언, 후자는 라이브러리 어시스턴트라고 부른다. 전문직사서의 초임급은 내가 있을 때 대체로 6,000불(연봉)이고 비전문직은 그 반밖에 되지 않았다. 전문직의 최저학력은 BA를 가진 유자격자라야 하며 MA를 가지면 더 우대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도서관협회의 인정을 받은 도서관학교 즉 Accredited Library School 졸업생은 여러 가지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A.L.A.에서 자격인정 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도서관학교를 조사하여 그 인정기준에 합격한 학교에 대해서 Accreditation을 주게 되는데 1965년에 전국에서 36교였다. 그 후 올바니(Albany)에 소재한 뉴욕 주립대학(이 학교에는 미스터 버세스가 근무하고 있다) 도서관학교도 인정기준(Standards for Accreditation)에 합격하여 37교가 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그 외에 여기에 합격 못한 학교가 270 여 개교가 있다. 대학원 졸업자에게는 MA나 MSL이 수여된다.

그리고 도서관학 박사과정을 가진 대학은 콜럼비아, 웨스턴 리저브, 캘리포니아, 시카고, 일리노이, 미시간, 라츠거즈, 인디애나 각 대학이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가진 김중환씨는 라츠거즈에서 박사 학위를 몇 해 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도서관학교에서 서로 특색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령 시카고 대학 도서관 학교에서는 주로 도서관학 교수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도큐멘테이션 분야에서는 클리블랜드에 있는 웨스턴 리저브 대학이 유명하고 인디애나 대학은 시청각교육에 뛰어나 있다. 그리고 죠오지 피바디나 올바니에서는 주로 학교도서관에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 미국을 떠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거대한 나라다. 국토도 한없이 넓거니와 생활수준을 비롯한 국력이 또한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하는 크고 위대한 나라다. 미국을 떠난 후 구라파 여러 나라를 돌아보고 더 절실히 이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거창하고 위대한 나라의 도서관도 또한 대단한 것이었다. 나는 도서관사업은 그 나라의 국력과 정비례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미국 국회도서관의 규모나 그 봉사활동의 광범위한 점 오직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다. 도서관학교에 있어서도 교수진의 충실, 커리큘럼의 다양성 그 교육방법의 우수성 이런 것이 오늘 날 미국으로 하여금 위대한 도서관 왕국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미국에도 고질적 사

(3면에 繼續)

않다. 이 대리점들에게 이 계약 조건 이외의 출판물에 대한 정보의 제공도 요구되며 이러한 자료들은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특히 이 플랜의 위원회는 거래상과 의 교섭에서 할인 보다는 봉사를 강조해 오고 있다.

### 3. 회원 도서관의 임무

회원 도서관들은 계산서가 도착되면 대리점의 지시에 따라 즉각 도서의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수입된 도서의 기본 목록 카이드는 도서 도착 후 1개월 이내에 종합 목록을 위하여 미 의회 도서관으로 보내야 한다. 신간 정기 간행물의 견본을 받으면 즉시 이의 구독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들은 이 플랜에 의해서 받은 모든 자료들은 상호 대출 제도나 사진 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4. 운 영

ARL의 회원들은 개인이 아니라 단체이다. 그들은 미국내의 가장 큰 대학 도서관들과 의회 도서관, 뉴욕 시립 도서관, 존 크리타 도서관과 같은 주요 도서관들이 포함되나 ARL의 건 회원이 이 플랜에 참여하지는 않으며 몇몇 비 회원들도 이 플랜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상의 모든 문제점은 정기적으로 1년에 2 회씩 소집되는 협회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ARL의 파아밍턴 플랜 위원회는 계획의 발전과 실행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진다. 이 위원회는 아프리카, 극동, 라틴 아메리카, 중동, 슬라브, 남아시아와 서부 유럽 자료에 관한 특별 위원회의 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특별 위원회는 그들 분야의 학술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일한다. 또한 재정 사무를 취급하며 통계를 작성하고 회원 도서관과 대리점과의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중재 조정하는 파아밍턴 플랜 사무국이 있다.

### 맺는 말

오늘 날 우리 나라의 학자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며 그들 연구에 지장을 주고 있는 요소는 자료의 부족인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외국에서 출판되는 자료를 잘 알 수 없다. 즉, 각 도서관에 서지적 자료(Bibliographical Tool)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완전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구입의 난점을 들 수 있겠다. 비록 자기가 원하는 자료가 출판되었다 하더라도 불화(弗貨)의 개인적 사용 불능과 또 서적상들을 통하여 수입한다 하더라도 그 절차에 막대한 경비와 시간을 낭비하고도 꼭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며 후진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우리들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악조건들을 극복하

기 위하여서는 우리들도 미국의 파아밍턴 플랜과 같은 움직임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한다. 도서관 상호간의 유대를 더욱 굳히며 서지적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며 국가적인 견지에서서의 장서 구성을 연구해 봄직 하다. 만약 서울에 있는 4개 대학교의 도서관 학과에서 이러한 플랜을 세워 긴밀한 협조 하에 장서를 구성해 나간다면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종류의 도서관학 자료들이 최대한도로 중복을 피하여 우리 나라에 들어 올 수 있게 될 것이며 이것은 도서관학 학도나 학자들에게 커다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운 문제점들이 따르겠으나 적은 테두리 안에서 소규모로 시작해 나간다면 점차 대규모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적인 규모로 발전하여 학자들의 연구활동에 큰 공헌을 할 수 있게 될 때 학계나 사회에서 도서관이나 도서관인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리라 믿는다.

앞으로 우리 도서관인들의 시간을 내적 정리 작업 보다는 외적인 대공중 봉사에 많이 할애할 수 있으면 한다.

참고 봉사는 물론이러니와 각 분야의 서지적 자료의 정리 및 교환을 통하여 명실공히 인포오메이션 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참고 자료>

- Vesper, Robert. The Farmington Plan Survey: A Summary of the Separate Studies of 1957-1961.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Graduate School of Library Science, 1965.
- Williams, Edwin E. Farmington Plan Handbook. Rev. to 1961 and abridged ed.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1961.

### (20面에서 繼續)

회현상이 있다. 월남전쟁 반대 데모는 각지에서 매일 같이 일어나고 흑백 인종 분규는 좀처럼 호전될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그 외에 잠재적 실업자문제 미국적 빈곤 문제 등이 미국의 어두운 면으로 언제나 클로즈업되고 있다. 한편 도서관계를 보더라도 지나친 기술 본위 즉 프랙티컬한 면만 두드러지고 문헌학적인 방면의 빈곤, 그리고 사서들의 대우문제 사서의 직업 수준의 저하 또 도서관 학교에서 우수한 교수의 이탈 여학생들의 지나친 수적 팽창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허다하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위대한 나라요 거대한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 당분간은 미국을 따를 나라가 없고 도서관이나 도서관학에 있어서 따라갈 나라가 아직은 있어보이지 않는다. 이제 나는 구라파로 떠나야 한다.